

# 인류세와 인문학

## -캐롤린 머천트의 생태 페미니즘이 조망하는 지구와 인문학의 미래

이윤종\*

1. 들어가며
2. 제2의 자연의 죽음: 인류세, 호모제노센, 플랜테이션세, 툴루세, 가이노세 및 자본세
3. 환경 인문학과 생태 페미니즘: 지속가능성과 동반자 윤리
4. 나가며

###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과학철학자 캐롤린 머천트의 2020년 신간 『인류세와 인문학: 기후변화부터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시대까지』(*The Anthropocene and the Humanities: From Climate Changes to a New Age of Sustainability*)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의 인류세 담론 지형을 살펴보고 머천트가 주창하는 환경 인문학적 렌즈를 통해 지구의 생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문학적 성찰을 고구해 보고자 한다.

생태주의와 페미니즘이 결합된 '생태 페미니즘'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캐롤린 머천트는 『인류세와 인문학』을 출간함으로써 가장 최근에 인류(*anthropos*)가 주도하는 지질시대를 뜻하는 '인류세(*anthropocene*)' 담론에 뛰어 들었다. 머천트는 자신의 대표작인 1980년 저서, 『자연의 죽음』(*The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

\*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을 통해 근대 서구의 자연관이 자연을, 그리고 자연과 동일시되는 여성을 비유적으로 함께 살해해 왔음을 고발한 바 있다. 『인류세와 인문학』에서 머천트는 인류세 시대가 ‘제2의 자연의 죽음’을 행하고 있다며, 환경 인문학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인간과 비인간 자연의 ‘지속가능성과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주문한다.

본고는 21세기에 들어선 인류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생태위기를 체감하는 시점에 발생한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가중된 지구의 인류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문학이 할 수 있는 역할, 즉 환경 인문학적 대안을 생태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고찰해볼 것이다.

(주제어: 인류세와 인문학, 캐롤린 머천트, 인류세, 생태주의, 자연의 죽음, 기후변화, 생태 페미니즘, 환경 인문학, 지속가능성, 동반자 관계, 동반자 윤리)

## 1. 들어가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인류세(anthropocene)’ 담론은 서구의 자연과학계뿐 아니라 사회과학계와 인문과학계까지도 통째로 뒤흔든, 그야말로 21세기의 화두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2018년 계간 문화이론지 『문화/과학』이 ‘인류세’ 특집을 발간한 것을 계기로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인류세’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한국적 담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sup>1)</sup> 문자 그대로 인류(anthropos)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지구환경을 개발하고 변형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남용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러 지구의 지질학

1) 다음을 참조할 것.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인류세 Anthropocene』 특집, 『문화/과학』 97호, 문화과학사, 2019. 『문화/과학』 97호의 특집은 이광석, 김상민, 김성윤, 김준수, 이소요, 임태훈 등의 국내 필자의 글과 더불어 차크라바티(Dipesh Chakrabarty)와 해러웨이(Donna Haraway) 등 해외 학자의 번역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 시간구분단위인 ‘세(cene)’를 좌지우지하는 주체가 되었음을 뜻하는 ‘인류세’는 21세기 인류와 지구의 미래의 전망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낳고 있다. 논쟁이 가열되며 종말론적 결론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도나 해러웨이와 같은 미국 과학철학자들은 비관론적 공황상태를 경계하며 인류세 대신 ‘툴루세(Chthlucene)’라는 신조어를 제안하며 인간과 지구환경 전체의 ‘공생(co-habitation)’을 위한 ‘친족 맺기(making kin)’를 제창한 바도 있다.<sup>2)</sup>

해러웨이와 마찬가지로 페미니스트 과학철학자이며 ‘생태 페미니즘(ecofeminism)’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캐롤린 머천트도 2020년 신간 『인류세와 인문학: 기후변화부터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시대까지』(*The Anthropocene and the Humanities: From Climate Changes to a New Age of Sustainability*)를 통해 가장 최근에 인류세 담론장에 뛰어 들었다. 『인류세와 인문학』은 머천트의 대표작이며 생태 페미니즘 연구서의 고전이 된 1980년 저서, 『자연의 죽음』(*The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의 연장선상에서 서구 과학사를 되짚어보며 현재 지구환경과 자연의 문제를 파헤치고 제목 그대로 인류세와 인문학의 관계 및 그 미래를 고찰하는 책이다.<sup>3)</sup> 본고는 『인류세와 인문학』을 통해 서구의 2020년까지의 인류세 담론 지형을 살펴보고 지구의 인류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 페미니즘적 대안을 고구해보고자 한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UC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2) 다음을 참조할 것 Donna Haraway,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lucen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6.

3) 『자연의 죽음』의 국내 번역본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캐롤린 머천트, 『자연의 죽음: 여성과 생태학, 그리고 과학혁명』, 전규찬 역, 미토, 2005. 필자는 번역본을 구하지 못해 출판 40주년 기념 원서를 구입해 읽었다.

Berkeley)의 환경 과학, 정책, 관리학과(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Policy, and Management)의 명예교수인 캐롤린 머천트는 국내에도 번역이 된 저서, 『자연의 죽음』과 『래디컬 에콜로지』(*Radical Ecology: The Search for a Livable World*)를 통해 생태학과 생태 페미니즘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연구자이다. 1936년생인 머천트가 80대 초반의 노익장으로서는 집필한 『인류세와 인문학』은 인류세의 정의와 그 역사라 할 수 있는 서구의 과학혁명 이래 진행된 자연의 개발과 파괴부터 시작해 역사, 미술, 문학, 종교, 철학, 윤리학 등의 인문학적 영역 제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류세 담론들과 운동들을 소개하며 ‘환경 인문학(environmental humanities)’이라는 새로운 인문학적 사유를 제안하고 있다. 이론 물리학과 과학사를 전공한 과학자이지만 서구 과학사에 대한 비판적, 윤리적, 젠더철학적 사유를 지속해온 페미니스트 과학철학자로서 인문학에 한 발을 크게 담고 있는 머천트는 생태학이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의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 아님을 1980년대부터 설파해온 이론가라 할 수 있다.

『인류세와 인문학』은 머천트의 1990년대 저서인 『래디컬 에콜로지』가 다양한 생태학적 담론들과 운동들을 소개하는 생태학 개론서였던 것처럼 인류세 담론의 인문학적 접근을 위한 입문서라 할 수 있다.<sup>4)</sup> 그러나 머천트가 서문에서 밝히는 것처럼 『인류세와 인문학』은, 『자연의 죽음』에서 그 궤적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던 중세의 유기체적 자연론으로부터 단절되기 시작한 17세기 ‘과학혁명’ 이후 근대 서구의 기계론적 자연관이 자행한 자연과 환경 파괴의 역사를 인류세적 비극의 관점에서 되짚어보는, 『자연의 죽음』과 짝패 관계에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또

4) 『래디컬 에콜로지』의 국내 번역본은 2001년 첫 출간된 이후 2007년에 2판이 나온 바 있다. 필자는 초판을 참조했다. 캐롤린 머천트, 『래디컬 에콜로지: 갯빛 지구에 푸른 빛을 찾아 주는 방법』, 허남혁 역, 이후, 2001.

한 『인류세와 인문학』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인류세와 인문학적 인류세 담론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된 개론서이니만큼, 이를 바탕으로 머천트의 과학철학자로서의 보다 깊이있는 사유와 연구를 접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죽음』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다. 실제로 머천트는 인류세를 “제2의 자연의 죽음(second death of nature)”이라 일컫고 있다.<sup>5)</sup> 그러나 『래디컬 에콜로지』나 『인류세와 인문학』과 달리 『자연의 죽음』은 고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관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세와 근대의 서구 과학계가 형성해온 자연론을 꼼꼼하고 세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대단히 방대하고 묵직한 연구서인 만큼 한 권을 온전히 다 읽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책이기도 하다. 그러한 연유로 원서는 미국에서 3판까지 발행되었지만 국내에서 2005년에 출판된 한글 번역본은 2021년 현재 오히려 구하기가 어려운 처지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도 생긴다.

본고는 『인류세와 인문학』을 소개하려는 목적에서 쓰여졌지만 머천트의 생태 철학을 관통하는 사상적 기반을 집대성한 『자연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신간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물론 1980년 처음 발간된 『자연의 죽음』과 2020년에 출간된 『인류세와 인문학』의 시간적 간극 사이에는 머천트가 그 사이에 집필한 『생태 혁명』(*Ecological Revolutions: Nature, Gender, and Science in New England*, 1989), 『래디컬 에콜로지』(1992), 『지구 돌보기』(*Earthcare: Women and the Environment*, 1996), 『콜럼비아 미국 환경사 입문서』(*Columbia Guide to American Environmental History*, 2002), 『에덴의 재발명』(*Reinventing Eden: The Fate of Nature in Western Culture*, 2003), 『미국 환경사 개론』(*American Environmental History:*

5) Carolyn Merchant, *The Anthropocene and the Humanities: From Climate Change to a New Age of Sustainabil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20, p.xvi.

*An Introduction*, 2007) 및 『자율적 자연』(*Autonomous Nature: Problems of Prediction and Control from Ancient Times to the Scientific Revolution*, 2015) 등의 저서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미국의 생태학적, 생태 페미니즘적 특수성에 대해 저술한 『생태 혁명』이나 『콜럼비아 미국 환경사 입문서』 및 『미국 환경사』보다는 보편적인 서구적 관점에서 자연론이나 환경론, 생태론을 조망한 『자연의 죽음』과 『래디컬 에콜로지』를 비롯하여 해러웨이 및 다른 서구 생태론자들의 연구를 참조하며 『인류세와 인문학』을 꼼꼼하게 읽어볼 것이다.

## 2. 제2의 자연의 죽음: 인류세, 호모제노센, 플랜테이션세, 툴루세, 가이노세 및 자본세

캐롤린 머천트는 인류세라는 용어의 정의와 그 인접 담론들을 살펴보며 『인류세와 인문학』을 시작한다. 2021년의 인류가 살고 있는 지질학적 시간대인 신생대 제 4기에 해당하는 홀로세(holocene)는 1만년 내지는 1만 2천년째 이어지고 있는 온난한 기후의 간빙기로, 쥐라기 시대 공룡의 멸망 이후 탄생한 인류가 서서히 진화하며 과학기술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발전시켜온 시대이다. 그러나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 뿐 아니라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전세계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은 코로나 19 팬데믹의 출현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인류가 지구 환경을 개발하고 변화시킨 근래 수 백 여 년동안 크게 몸살이 난 지구의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의 주범인 인류의 역할과 책임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과학자들은 ‘인류세라

는 용어를 고안해 이제 ‘홀로세’가 아니라 ‘인류세’의 시대가 되었음을 설파하며 적극적으로 위기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본장에서는 머천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류세 논자들의 논의를 살펴봄과 동시에 인류세를 대체하여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를 표현하는 호모제노센, 플랜테이션세, 툴루세, 가이노세, 자본세 등 다른 용어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것이다.

머천트 뿐 아니라 인류세 논자들이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에 대해 논할 때마다 빠질 수 없는 글이 미국 생물학자 유진 스토머와 네덜란드 대기 화학자 폴 크뤼첸이 2000년 공동집필한 1쪽 분량의 성명서인 『인류세』이다. ‘인류세’라는 용어의 최초 고안자인 스토머는 자신의 개념어를 1980년대 초부터 사용해 왔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1995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크뤼첸이 스토머의 주장에 적극공감하며 그의 행보에 동참하여 2000년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부터이다. 크뤼첸의 노벨상 후광과 인지도 덕분에 ‘인류세’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2008년 즈음에는 전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으나 점차 필수불가결해진 이 용어를 상당히 차용”한 상태가 되었다.<sup>6)</sup>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 인류세라는 용어는 자연과학계와 이공계 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계와 예술계까지 강타한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었다.<sup>7)</sup>

크뤼첸과 스토머는 인류세의 시발점을 18세기 후반으로 잡고 있는데, 이 시기는 “1784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과 일치”하기도 한다.<sup>8)</sup>

6) Donna Haraway,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6, p.45.

7) Donna Haraway,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6, pp.45-46.

8) Paul J. Crutzen & Eugene F. Stoermer, “The Anthropocene”, *IGPB(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 Newsletter*, 41, 2000, pp.17-18.

18세기 후반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가동되는 증기기관이 장착된 기차와 증기선 등이 줄줄이 발명되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었고 이는 결국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와 같은 온실 가스 배출을 급증시켜 지구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크뤼첸과 스토머는 인간이 지구의 대기와 생태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게 커짐에 따라 홀로세라는 지질학적 명칭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현재의 지질학적 시기를 인류세라 명명함으로써 지질학과 생태학에서의 인류의 중점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적실한 행동”이라 힘주어 말한다.<sup>9)</sup> 이들은 “전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가 수반될 필요를 강조하며, 지구는 “화산 대폭발, 전대미문의 전염병(epidemic), 대단위의 핵 전쟁, 운석 충돌, 새로운 빙하기 및 지구 자원의 지속적인 수탈과 같은 거대 재앙이 없다면, 특히 끝의 네 가지 위험은 인간생활권(noösphere)의 제대로 된 작동 하에서는 예방할 수 있기도 하여, 인간이 앞으로 수 천 년 동안, 아니 아마도 몇 백만 년 동안 지질학적 주(主) 동력(a major geological force)으로 존재할 것”이라 예측했다.<sup>10)</sup> 이러한 예측은 양가적이어서 인류의 위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류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강력한 경고라고도 할 수 있다. 2020년대의 인류는 실제로 기후 위기뿐 아니라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닐 수 없는 처지에 처함으로 인해 이미 대재앙과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머천트와 비슷한 연배로 2012년 타계한, 인류세 개념의 창시자, 스토머가 현재의 상황을 보았다면 어떠한 발언을 했을지 몹시 궁금해지기까지 한다.

9) Paul J. Crutzen and Eugene F. Stoermer, “The Anthropocene”, *IGPB(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 Newsletter*, No.41, 2000.5, p.17.

10) Paul J. Crutzen and Eugene F. Stoermer, “The Anthropocene”, *IGPB(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 Newsletter*, No.41, 2000.5, p.18.



머천트는 『인류세와 인문학』에서 크뤼첸과 스토머의 글을 간략히 소개하고 지구 온난화와 온실 가스 등에 대해 거론한 뒤 인류세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그 대안적 용어들을 소개한다.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했듯 인류세는 “인간(anthropos)의 시대”를 뜻하는데, 이는 ‘인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과대평가한 나머지 다른 요소들이 간과된다고 하여 대안적 용어들을 제안하는 생태주의자들도 상당히 있다. 호모제노센, 플랜테이션세, 툴루세, 가이노세, 자본세 등이 그러한 대안적 용어들이다. 1999년 생물학자 찰스 만에 의해 처음 주창된 ‘호모제노센(homogenecene)’은 인간과 같은 침략적인 종이 일으킨 지구 생물권의 균질화(homogenization)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고안된 용어이다.<sup>11)</sup> ‘플랜테이션세(plantationcene)’는 거대농장(plantation)에서 노동자와 노예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일어난 생물 다양성 침범의 과정을 뜻한다.<sup>15)</sup> 도나 해러웨이가 주창한 ‘툴루세(chthlucene)’는 캘리포니아 털거미의 일종인 ‘피모아 툴루(Pimoa Cthlhu)’와 더불어 고대 그리스 신화 속 메두사, 동물들의 여성 수호자인 포트니아 테론(Potnia Theron), 벌들의 여성 수호자인 포트니아 멜리사(Potnia Melissa)와 같은 신화적 다촉수 생물에 착안하여 다수의 다리나 촉수를 가지고 다른 생물들과 두루두루 연결된 지구환경체제의 친족화를 추구하는 개념어이다.<sup>12)</sup> 이들이 가진 다수의 다리와 촉수가 ‘촉수적 사고(tentacular thinking)’를 가능하게 하여 사람들이 인류세 시대의 종말론적 공황으로부터 벗어나 타 생명체들과의 적극적 교감, 즉 친족 형성을 통해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와

11) Carolyn Merchant, *The Anthropocene and the Humanities: From Climate Change to a New Age of Sustainabil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20, p.15. 이하 각주가 아닌 본문에서 쪽수 표시.

12) Donna Haraway,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lucen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6, pp.52-53.

함께 공생하는 톨루세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sup>13)</sup> ‘가이노세(gynocene)’는 ‘가부장세(patriarchalocene)’의 반의어로 ‘여성의 시대’를 뜻하며 남성의 여성과 자연에 대한 지배와 착취에 반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포괄한다. 이는 “생태, 젠더, 인간의 다양성을 보존하려는 토착적인 운동들과 함께 페미니스트와 생태 페미니스트의 활동에 의한 [가부장세]의 반전 가능성”을 포괄하고 있다.(16)

마지막으로 ‘자본세(capitalocene)’는 머천트의 말마따나 “인류세라는 용어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서 자본주의가 현재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19) 자본세 논자들은 나오미 클라인이나 이안 앵거스와 같은 캐나다의 대중 지식인 혹은 사회주의자를 비롯해 남미 원주민의 관점에서 동물과 자연을 바라보는 브라질 연구자 에두아르도 비베이로스 데 카스트로나 미국의 생태주의 역사학자인 제이슨 무어와 같은 자본주의적 자연 착취에 반대하는 학계 인사까지 포괄한다.(19-22) 머천트는 “인류세라는 개념은 자본세를 포괄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세는 자본세에 의해 시행되어 왔다”고 정리한다.(23) 앞서 크뤼첸과 스토머의 글을 상술하며 언급했듯, 증기기관의 발명과 화석연료의 사용이 인류세의 시발점이지만 증기기관과 화석연료는 자본주의자들에 의해 독점된 후 거대 기업에 의해 보편화되며 자본주의 발전을 추동시킨 역학관계를 이루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머천트는 인류세와 자본세는 인간과 자연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변

13) Donna Haraway,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6, pp.30-57. 책의 2장의 제목이 ‘Tentacular Thinking: Anthropocene, Capitalocene, Chthulucene’으로, 해러웨이는 2장 전체에 걸쳐서 인류세나 자본세라는 용어 대신에 ‘톨루세라는 대안적 용어를 고안해 제출하며 톨루세 시대의 ‘축수적 사고’를 통해 인간과 지구/자연/환경이 은유적 축수를 통해 다같이 연결되고 교감함으로써 공생할 것을 제안한다.

증법적 과정이라며, “역사는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주고 받는 과정에 의거”하고 있고 “실현 가능한 미래는 때로는 진보로 때로는 결전이나 퇴보로 규정지어지는 전진과 후퇴의 과정” 속에 있다고 설파한다.(24) 머천트의 ‘전진과 후퇴’의 변증법적 역사관은 인류의 ‘끝없는 진보와 발전’을 위해 자연과 환경, 제 3 세계를 식민지화하고 무력화하며 수탈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남성주의적, 서구중심주의적, 식민주의적 세계관에 반기를 드는 생태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머천트는 『자연의 죽음』에서 16세기와 17세기 사이에 진행된 ‘과학혁명’ 시기에 유럽의 지식인들이 자연을 유기체로 이해하던 르네상스 시대까지의 자연관과 작별하고 자연을 인간이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계’로 바라보기 시작하며 적극적으로 자연을 해부하고 파헤쳐 그 자원을 전유해야 한다는 세계관을 가지기 시작하며 자연을 살해해 왔음을 설파한 바 있다.<sup>14)</sup> 『인류세와 인문학』에서 머천트는 이에 덧붙여 크뤼첸과 스토머가 인류세의 시발점으로 특정한 1784년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 연도 이후 가속화된 산업자본주의의 본격적인 발전기를 “우리가 두 번째 자연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라 꼬집는다.(26) 과학혁명 이후 18세기 계몽주의 시기의 유럽은 세상에 대한 낙관주의적 전망과 인간이 자연에 대해 속속들이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믿음을 굳건하게 한 원천으로 머천트는 증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를 비롯해 열 역학 제 1 법칙과 제 2 법칙을 이론화하고 정리한 사디 카르노, 에밀 클라페이론, 루돌프 클라우시우스, 윌리엄 톰슨(켈빈 남작), 제임스 줄, 윌리엄 랭킨, 루트비히 볼츠만 등의 물리학자들의 업적을 꼽고 있다. 이들의 업적은 “증기선, 기차, 공장 설립과 산업화

14) 다음을 참조할 것. Carolyn Merchant, *The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New York: Harper One, 2020.

시대의 초석이 되어 화석연료를 연소하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주범이 되었다.(45)

인류세의 초창기부터 시작된 대기오염은 과학혁명기에 은유적으로 죽음에 처해졌던 자연을 실질적으로 살해하는 ‘제 2의 자연의 죽음’을 초래했으며 21세기에 기후 변화의 형태로 새로운 악몽을 인류에게 안겨주었다. 머천트가 지적하듯, 세상에 대한 서구인의 낙관적 전망은 19세기 말부터 사라져가기 시작했는데, 이는 미술과 문학 작품들 속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인류세와 인문학』의 2장과 3장에서는 19세기와 20세기의 이러한 예술적 흐름들을 윌리엄 터너, 에두아르 마네, 클로드 모네, 앤드루 멜로즈, 존 개스트, 존 케인 등 화가들의 회화 작품과 올라푸르 엘리손과 같은 동시대 설치 미술가들의 작품을 비롯해 윌리엄 워즈워드, 윌트 휘트먼, 로버트 프로스트, 게리 스나이더, 로버트 하스, 찰스 디킨슨, 나다니엘 호손, 존 스타인벡, 랄프 왈도 에머슨,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알도 레오폴드, 존 맥피, 바바라 킹솔버, 애니 딜라드 등 산업화에 비판적인 작가들의 문학 작품들을 소개하며 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세기의 열역학 전문가로서 기존의 결정론적이고 폐쇄적인 열역학을 뒤흔들며 ‘비평형 열역학(far-from-equilibrium thermodynamics)’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며 21세기의 과학혁명을 일으킨 일리아 프리고진과 같은 과학자들의 등장으로 인해 인류의 무한진보에 대한 낙관주의적 전망이 스러지기도 했음을 설명하기도 한다.(42-45) 프리고진의 이론은 인간이 초래한 지구환경의 위기, 특히 기후변화를 타파하기 위한 생태주의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적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류세 시대의 인문학자와 생태주의자, 특히 생태 페미니스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제 머천트의 『인류세와 인문학』을 『자연의 죽음』과 함께 읽어보며 생태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인류세 시대를

헤쳐나갈 사상적, 철학적 통찰을 찾아 인문학의 미래를 전망해볼 차례이다.

### 3. 환경 인문학과 생태 페미니즘: 지속가능성과 동반자 윤리

캐롤린 머천트가 『인류세와 인문학』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인류세 시대 “인간과 자연의 공동생존(mutual survival of humanity and nature, p.x.)”이다. 이러한 공동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문학자의 통찰력’이므로 인문학이 특유의 비판정신을 장기로 내세워 환경 위기에 대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환경 인문학(environmental humanities)’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세 시대의 환경 인문학을 통해 머천트가 부각시키는 두 개의 핵심어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동반자 윤리(partnership ethic)’이다. 이 지속가능성과 동반자 윤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여성과 소수자, 비인간 자연의 포함(inclusion of women, minorities, and nonhuman nature)’인데, 이는 생태 페미니즘의 기치라고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페미니즘에서는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와 해방에 초점이 맞춰지는 데에 반해, 생태 페미니즘에서는 거기에 더해 자연/환경과 더불어 자연재해나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소외 계층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각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머천트가 생태 페미니스트로서 펼치는 환경 인문학의 미래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이러한 환경 인문학이 강조하는 지속가능성과 동반자 윤리를 통해 인류세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머천트가 말하는 지속가능성과 동반자 윤리에 대해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지속가능성은 사실 생태학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는 정보자본주의자의 개발 논리에도 자주 활용되는 개념이기도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자주 혼동되기도 한다. 그러나 머천트는 자신이 주장하는 지속가능성이 지속가능한 발전과는 매우 다른 것임을 누누히 강조해 온 바 있다: “여성 환경단체와 다양한 비정부 환경기구들은 발전에 대한 지배적 접근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속가능한 삶(sustainable livelihood)’으로 대체해 왔다. 지속가능한 삶은 사람 지향의 접근으로서 기본 욕구와 건강, 고용, 노년기 안정의 충족과 빈곤의 근절 및 여성의 자기신체와 피임방식 및 인적자원에의 자율적 통제를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법의 예로 지역화된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물지역주의 및 지속가능성의 토착화를 들 수 있다.”(145)<sup>15)</sup> 다시 말해, ‘지속가능한 발전’은 문자 그대로 자연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약간의 친환경정책을 농수산업이나 삼림관리, 도시개발 등에 도입해 적용하는 것이고, ‘지속가능한 삶’은 개발과 발전의 논리에서 벗어난 대안적인 삶의 방식, 즉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빈자 및 소수자와 비인간 자연의 자율적 삶을 배려하고 보장하는 삶의 방식으로 생태 페미니즘의 기치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머천트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삶을 바탕으로 하는 인류세 시대의 새로운 정의와 윤리로서 ‘동반자 윤리’를 제안한다. 머천트는 『인류세와 인문학』의 4, 5, 6장에서 인류세를 극복할 수 있는 해안을 제공하는 종교와 철학, 사상 등을 소개하는데, 6장에서 본인의 윤리적 대안이자 사상으로서 ‘동반자 윤리’를 소개한다. 4장에서는 기독교에서의 생태주의적 교파와 노자의 도가 사상을 비롯하여 존 콕과 데이비드 그리핀, 제

15) 『인류세와 인문학』에서 『래디컬 에콜로지』를 재인용하고 있다. 본 인용문은 필자의 번역이므로, 『래디컬 에콜로지』의 번역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 맥다니엘 등이 이어가고 있는 생태주의적 신생종교인 과정신학(Process Theology) 등을 생태주의적 신학의 조류로 제시한다.(90-106) 5장에서는 세계의 근원물질을 탐구한 고대 그리스 사상으로 되돌아가 탈레스, 아낙시메네스, 헤라클레이토스 등의 ‘자연주의자(naturalists)’와 엠페도클레스, 데모크리토스 등의 ‘원소론자(atomists)’ 및 파르메니데스가 수립한 자연관에 주목하는데, 특히 헤라클레이토스가 주장한 ‘변화와 파르메니데스가 강조한 ‘논리’를 통해 피타고라스의 수학 이론이 설계될 수 있었고 그 안에는 비논리적 모순도 함께 존재했음을 주장한다.(114-119) 머천트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피타고라스의 수학적 모순이 세계가 “이성적이며 비이성적인 동시에 논리적이며 비논리적”(118)이라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라며,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에드워드 로렌츠의 ‘나비 효과’가 강조하는 ‘비정형성(irregularity)’과 프리고진과 이자벨 스탕저가 공동 수립한 ‘복잡계 이론’이 자연계가 인간에 의해 함부로 통제될 수 없는, 비선형적이며 카오스적인 체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역사적 흐름이라 강조한다.(121-124)

6장에서는 인류세와 관련된 윤리와 철학을 소개하며, 자신의 ‘동반자 윤리’를 주창한다. 머천트는 인류세에 대한 기존의 윤리적 접근을 ‘자아(self)’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자아중심주의(egocentrism(liberal))’, ‘인간중심주의(homocentrism/anthropocentrism)’, ‘생태주의(ecocentrism(ecological))’ 및 ‘다문화중심주의(multiculturalism)’라는 4가지 틀로 구분해 소개한다. 자아중심주의는 토머스 홉스의 사상으로 대표되는 개인의 이익 추구 및 이익의 최대화를 중시하는 논리이고, 인간중심주의는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 등의 공리주의자가 추구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론이며, 생태주의는 1930-40년대 현대 생태학의 창시자인 알도 레오폴드로부터 시작되어 최근의 생태주의자, J. 베어드 캘리코트의 다문화주의 윤리로

이동하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127-130) 특히 캘리코트의 생태주의는 “모든 인간이 현지 생물지역권 문화와 국제화된 지구문화의 일부”임을 역설하며 생물권과 문화권에 있어서의 다문화주의를 강조하는 윤리라는 점에서 참신하다고 평한다.(130) 또한 피터 싱어, 스티븐 가디너, 아일린 맥거티, 마리아 카스틸로, 로버트 블라드, 헤더 켄달-밀러 등의 생태 이론가와 활동가 등이 강조하는 기후 윤리와 기후 정의를 통해 인류세 시대의 주체가 아니었음에도 그 가장 큰 피해자가 된 남미와 알래스카의 원주민 등 생태학적 소수자에 대한 고려가 절실함을 역설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머천트는 인간과 비인간 자연의 ‘동반자 관계(partnership)’를 수립하기 위한 ‘동반자 윤리(partnership ethic)’의 네 가지 수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인간과 비인간 공동체 간의 형평성(equity)
2. 인간 및 타 생물종(other species) 양자에 대한 도덕적 배려
3. 문화적, 생물적 다양성 전체의 존중
4. 윤리적 책임에 있어서 여성, 소수자, 비인간 자연의 포함
5. 인간 및 비인간 자연 공동체 양자의 지속적 안녕(continued health)과 일치하는 건전한 생태 관리(146)<sup>16)</sup>

인간과 비인간 자연 양자가 지구 상에서 함께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즉 공존·공생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동반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양자의 평등한 관계와 이를 위한 서로의 배려와 존중 및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기존 서구철학에서

---

16) 『인류세와 인문학』에서 다음의 책을 재인용하고 있다. Carolyn Merchant (ed.), *Major Problems in American Environmental History*, Boston: Wadsworth Cengage Learning, 2012, p.224.



강조하는 인간=남성이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를 포괄하되 이들이 인간과 비인간 자연에 대해 갖는 책임감도 함께 인식하고 나눠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머천트의 생태 페미니즘을 요약하는 인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일반적인 페미니즘이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와 해방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생태 페미니즘은 이들의 권리와 해방 뿐 아니라 이들의 생태적 책임을 강조하고 인간과 동등한 주체로서의 비인간 자연을 중시한다.

머천트가 『래디컬 에콜로지』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생태 페미니즘(ecofeminism)은 1970년대에 “여성과 자연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면서 등장”하여 1974년 여성들이 생태혁명을 주도하여 지구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즈 도본이 ‘l’écoféminisme’이라는 용어를 고안해낸 이후 정립되어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과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사상이자 운동이 되었다.<sup>17)</sup> 머천트의 생태 페미니즘의 근간은 『자연의 죽음』에서 완전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서는 비인간 자연이 여성만큼이나 남성 지식인에 의해 역사적으로 수난을 겪어왔음을 역사적, 철학적, 과학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앞서 『인류세와 인문학』에서 머천트가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에 대해 설명했음을 언급했는데, 『자연의 죽음』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인식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위시하여 고대 그리스의 다종다양한 학파의 철학자들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세세하게 추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연의 죽음』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중세의 신플라톤주의자-연금술사들과 르네상스 시대의 유토피아주의자들을 거쳐 정립된, 자연을 유기체, 즉 생명체로 바라보던 자연관이 16세기 근대 과학혁명의 시기에 이르러

17) 캐롤린 머천트, 『래디컬 에콜로지: 잿빛 지구에 푸른 빛을 찾아 주는 방법』, 허남혁 역, 이후, 2001, 249쪽.

변질되기 시작해 인간에 의한 자연 살해의 과정이었음을 비유적으로 고발한다. 과학혁명 시대에 자연이 ‘영혼 없는 신체’, 즉 ‘기계’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발전시킨 과학과 기술을 통해 탐사·개발·정복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비유적으로 파괴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 18세기 말 증기기관의 발명에 힘입어 직접적이고 본격적으로 살해되는, 제 2의 자연의 죽음, 즉 인류세 시대에 다다른 것이다.

머천트는 『자연의 죽음』에서 고대부터 서구 사회가 자연에 대해 이중적 시각을 견지했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어머니 자연’으로서의 “양육적(nurturing)” 이미지가 그 하나이고 “여성과 자연을 동일시”하여 “야성적이고 무질서하며 통제불가능”한 이미지로 규정하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sup>18)</sup> 근대의 자연론에서는 이 후자의 이미지가 부각되어 “자연에 대한 정복과 지배”가 강조되었는데 이는 기계론적 자연관과 결합하여 강화되었다.(1980, 2) 그러나 모성적 자연의 이미지도 결국 “목가적 전통 속에서 자연이 경작되고 재배되어 상품으로 이용되고 자원으로 활용”되어야만 가치가 있다는 가치체계와 결부되어 있으므로 “여성과 자연 양자는 순종적이고 근본적으로 수동적”이라 여겨져 왔다.(1980, 8-9) 고대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그나마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동등하게 결합되어 자연이 ‘유기체(organism)’로 이해되고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이 자연 속에서, 혹은 자연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토피아적 가능성이 제시되었다.(1980, 69-126) 그러나 근대에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기 시작한 데카르트적 이원론 이래로 자연은 영혼이 없는 신체, 즉 기계로 여겨지기 시작하였고, 프란시스 베이컨 이래

18) Carolyn Merchant, *The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New York: Harper One, 2020, p.2. 이하 본문에서 괄호 속에 최초 발행연도인 1980년과 쪽수를 함께 표기할 것이다.

로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완전히 자리잡기 시작했다.(1980, 164-252) ‘근대 과학의 아버지’인 베이컨은 “과학의 발전(scientific progress)”을 개념화하며 서구사회가 무한히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베이컨이 강조한 “과학의 발전이라는 개념은 기술의 발달 및 ‘초기 자본주의 경제의 수요’와 결합되어 많은 학자들에게 의해 구축되었는데, 그들은 16세기의 수많은 장인, 기계공, 학자, 인문주의자가 하나의 지적 태도로서 추구한 공익과 이론의 정립을 위한 협력과 지식의 공유를 주장했다.” (1980, 179) 베이컨은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성장과 발전’의 추구를 강화한 과학철학자이자 정치가로서 과학의 발전을 위해 기계와 동일시되는 자연을 기꺼이 파헤치고 그 무질서함을 정복하여 질서정연하게 길들이고 지배하여 개발해야 함을 널리 설파했다.(1980, 185) 베이컨의 기계적 자연론은 토머스 홉스의 정치 이론에도 흡수되어 홉스는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의 기계 모형”을 제시하여 “자연 상태는 혼돈과 공포의 무질서 상태이므로 개인은 경쟁을 통해 지배하고 영광을 얻기 위한 물질주의적 욕구를 갖기 시작”했다면서 능력있는 개인은 노력을 통해 결국 사회적 무질서를 극복하고 영광에 이른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1980, 209-210)

『자연의 죽음』이 출간된 이후 많은 생태 페미니스트들이 데카르트와 베이컨을 악마화하고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사상에 남성의 여성과 자연에 대한 자본주의적 지배와 착취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수의 생태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은 자연과 마찬가지로 남성에게 의해 착취되고 파괴된 피해자라는 인식을 확대시키기도 했다. 이탈리아의 자율주의 페미니스트인 실비아 페데리치는 데카르트 철학의 핵심을 “신체의 기계화에서 출발한 자기관리이론의 발달”에서 찾으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혼 없는 세상과 인체기계 속에 살면서, [세익스

피어의 희곡 『폭풍우』의 등장인물 프로스페로처럼 자신의 마법 지팡이를 잘라버리고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뿐 아니라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자리하게 된” 데카르트적 인간의 등장에 주목한다.<sup>19)</sup> 페데리치는 신체에 대한 정신의 우위를 강조한 데카르트의 철학이 20세기 말의 중산 계급에게 인기 있는 이유가 “데카르트의 철학이 조장한 자기지배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까지 분석하며 현대 지배계층, 특히 서구 남성 엘리트의 허위의식을 비판한다.<sup>20)</sup> 페데리치는 데카르트적, 베이컨적 남성이 이루어낸 과학혁명 시대 이전부터 “유럽에서 [남성] 엘리트들이 포용했던 ‘유기적인 세계관’이 노예제와 이단의 몰살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을 [머천트개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sup>21)</sup> 1993년에 런던에서 최초출간된 『에코페미니즘』의 공동저자인 독일 맑스주의 페미니스트 마리아 미즈와 인도의 과학철학자 반다나 시바는 ‘마녀사냥’의 주범으로 베이컨을 지목하기도 한다. 머천트는 『자연의 죽음』의 한 챕터를 중세와 근대 유럽에서의 마녀사냥에 온전히 할애해 여성을 무질서와 동일시하며 나타난 남성의 여성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범죄로서의 마녀사냥을 재역사화하고 과거의 지식인 여성으로서 마녀가 가지는 현대적 위상을 재의미화한 바 있다.(1980, 127-148) 미즈와 시바는 머천트가 마녀사냥에서 베이컨의 역할을 간과했다며 과학적 지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권

19) 실비아 페데리치, 『캘리번과 마녀: 마녀사냥을 보는 새로운 시각, 수십만 “마녀들”의 처형을 통해 성립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황성원·김민철 역, 갈무리, 2013, 218쪽, 221쪽.

20) 실비아 페데리치, 『캘리번과 마녀: 마녀사냥을 보는 새로운 시각, 수십만 “마녀들”의 처형을 통해 성립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황성원·김민철 역, 갈무리, 2013, 223쪽.

21) 실비아 페데리치, 『캘리번과 마녀: 마녀사냥을 보는 새로운 시각, 수십만 “마녀들”의 처형을 통해 성립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황성원·김민철 역, 갈무리, 2013, 302쪽.

력을 강조한 베이컨의 과학관이 제 3세계에 대한 식민주의적 착취의 시발점이 되었음을 책 속에서 수차례 강조하며 이를 문제시한다.<sup>22)</sup> 페데리치 또한 같은 입장에서 마녀사냥을 연구하며 데카르트와 베이컨, 그리고 그 이전의 신플라톤주의자들까지도 맹비난한다. 그러나 머천트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이나 베이컨의 ‘과학의 발전’에 대한 신념이 ‘제 1의 자연의 죽음’을 추동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을 최초로 지적한 장본인임에도, 데카르트와 베이컨을 위시한 남성 사상가들에 대해 최대한 담담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페미니스트 과학철학자인 이블린 폭스 켈러가 머천트의 영향 하에서 과학사에서 여성의 위치를 추적하며 베이컨을 비판하면서도 “베이컨이 실제로는 과학의 옹호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더 진실된 과학적 자극 정신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공하였고, 과학의 비판자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모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과학자적인 태도일 것이다.<sup>23)</sup>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양날의 검처럼 인류에게 흑백의 명암을 동시에 선사했기 때문이다.

머천트는 또한 1990년에 발간된 『자연의 죽음』의 두 번째 개정판의 「1990년 서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일부 생태 페미니스트들이 데카르트나 베이컨처럼 여성과 자연을 동일시하며 “젠더 본질주의(essentialism)”를 공고하게 하는 “모순”을 지속하고 있음을 비판하기도 한다. 머천트는 젠더 본질주의가 “여성이나 자연을 해방시키기보다 오히려 여성과 자연 모두를 억압하는 형태로서 굳어져 왔음”을 우려한다.(xxiv) 여성과 자연이라는 개념에는 “영구불변의 본질적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개념 모두 언제나 변화하는, 즉 “역사적이며 사회

22) Maria Mies & Vandana Shiva, *Ecofeminism*, London: Zed Books, 2020, p.44, p.146.

23) 이블린 폭스 켈러, 『과학과 젠더』, 민경숙·이현주 역, 동문선, 1996, 46쪽.

적으로 구성”된 인식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xxiv) 따라서 머천트의 생태 페미니즘은 여성이 자연의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된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남성과 함께 자연살해를 행한 주체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연파괴의 결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특정 인구 집단이 있음도 언제나 함께 언급하며 생태 페미니즘과 환경 인문학이 주목해야 하는 계급적, 인종적 차이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머천트는 인류세 시대라는 현재의 생태학적 위기 속에서 데카르트나 베이컨, 혹은 서구의 남성 엘리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지구 생태 파괴의 책임을 통감하고 나누어 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며 인류와 자연 생태계 내에서도 자연 파괴의 폐해로 서식지를 잃은 특정 집단에 대한 배려와 돌봄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죽음』에서 근대 초기에 서구에서 이루어진 자연에 대한 비유적 살해, 즉 제 1의 자연의 죽음에 대해 논했던 머천트는 『인류세와 인문학』을 통해 인류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시작된 자연에 대한 실질적 살해, 즉 제 2의 자연의 죽음이라는 위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환경 인문학이 진전될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머천트의 환경 인문학은 인간과 비인간 자연간의 지속가능성과 동반자 윤리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새로운 시대의 윤리학이라 할 수 있다. 머천트는 『자연의 죽음』의 출간 이후 지난 40 여 년 간 정립해온 자신의 환경 인문학을 『인류세와 인문학』에 끌고 들어와 인류세 시대의 정의와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인문학적 논의들을 통해 인류세 담론의 정점을 찍으려는 시도를 한 셈이다. 머천트보다 발빠르게 인류세와 관련된 논의를 펼친 해러웨이는 인류세라는 용어 대신에 틀루세라는 신조어를 제시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축수적 사고를 통한 ‘친족 관계(kinship)’을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머천트는

해러웨이와 유사하면서도 다소 다른 방향에서 인류세라는 용어의 유용성을 부각시키며 ‘동반자 관계’를 강조한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두 페미니스트 과학철학자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지구의 생태위기와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생태학적 논의를 가지고 나올지 기대하며 본문을 마치고자 한다.

#### 4. 나가며

본고는 페미니스트 과학철학자이자 환경 인문학자인 캐롤린 머천트의 2020년 신간 『인류세와 인문학』을 통해 최근까지의 인류세 담론을 살펴보고, 머천트가 제시하는 인류세 시대 인문학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서구 지식인들의 자연에 대한 시각과 담론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탐구하는 1980년 저서 『자연의 죽음』을 통해 머천트는 고대부터 자연이 여성과 동일시되어져 왔으나 중세까지는 유기체적으로 함께 공생해야 할 존재로 인식되다가 근대에 들어서 자연과 여성 모두가 (남성중심적·서구중심적) 사회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복’하고 ‘통제’되어야 하는 ‘비이성적 대상’ 혹은 ‘기계’로 변질되었음을 논증한 바 있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젠더적 시각과 담론은 21세기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주의와 페미니즘이 결합된 생태 페미니즘은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중요한 사상적, 실천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근대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된 결과로 인간의 지구환경의 파괴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간과 지구의 공멸에 대한 걱정 및 불안과 의문이 현실지질시대를 인간 스스로 인류세라는 명칭으로 규정짓도록 한, 지속가능

성의 임계점에 다다랐다고도 할 수 있다.

머천트는 서구에서 17세기 초부터 시작된, '비유적 자연의 죽음'에 이어, 18세기 말 증기기관의 발명 시점부터 본격화된 '인류세 시대'에 대해 인간이 실질적으로 자연을 살해하는, '제 2의 자연의 죽음'이 실행된 시대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제 2의 자연의 죽음으로서의 인류세를 돌파하기 위해 머천트는 인간과 비인간 자연의 '동반자 관계'와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동반자 윤리' 및 '지속가능한 삶'을 제안한다. 머천트가 말하는 지속가능성과 동반자 윤리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과 비인간 자연의 수평적 관계와 상호존중이지만, 인류세로 인한 재난, 즉 홍수나 산불, 사막화를 비롯해 현재의 코로나 19 감염병 정국 하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와 배려 및 비인간 자연에 대한 책임감 있는 주체로서의 여성과 소수자 및 비인간 자연의 역할이 함께 포괄된다는 측면에서 머천트적인 생태 페미니즘의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생태 페미니즘은 1960년대 후반부터 발흥되어 1970년대와 1980년대까지는 담론으로서나 운동으로서 활발하게 전개된 바 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다소 힘이 빠진 측면이 있다. 물론 머천트와 같은 생태 페미니스트들은 지속적인 출판 작업을 통해 꾸준한 연구결과의 축적과 진전을 보여왔고, 2020년 대단히 대중성이 짙은 『인류세와 인문학』의 출간을 통해 생태 페미니즘을 보다 대중화시키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노익장의 월기로 완성된 『인류세와 인문학』이 출간된 직후 예상치 못하게 전지구화된 코로나 19 감염병의 팬데믹화는 인문학에서의 생태주의 담론을 갑작스럽게 폭발시킨 계기가 되기도 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2021년 중반 현재 코로나 19와 연계되어 『인류세와 인문학』이 보다 대중화되며 젠더 본질주의를 벗어난 관점에서 생태 페미니즘 논의가 다시 한 번 활발하게 부흥하기를 희망해 본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Merchant, Carolyn, *The Anthropocene and the Humanities: From Climate Change to a New Age of Sustainabil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20.

### 2. 논문과 단행본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인류세 Anthropocene」 특집, 『문화/과학』 97호, 문화과학사, 2019.

실비아 페데리치, 『캘리번과 마녀: 마녀사냥을 보는 새로운 시각, 수십만 “마녀들”의 처형을 통해 성립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황성원 · 김민철 역, 갈무리, 2013.

이블린 폭스 켈러, 『과학과 젠더』, 민경숙 · 이현주 역, 동문선, 1996.

캐롤린 머천트, 『래디컬 에콜로지: 젓빛 지구에 푸른 빛을 찾아 주는 방법』, 허남희 역, 이후, 2001.

\_\_\_\_\_, 『자연의 죽음: 여성과 생태학, 그리고 과학혁명』, 전규찬 역, 미토, 2005.

Crutzen, Paul J. & Eugene F. Stoermer, “The Anthropocene”, *IGBP(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 Newsletter*, No.41, 2000,5, pp.17-18.

Haraway, Donna,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6.

Merchant, Carolyn (ed.), *Major Problems in American Environmental History*, Boston: Wadsworth Cengage Learning, 2012.

\_\_\_\_\_, *The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New York: Harper One, 2020.

Mies, Maria & Vandana Shiva, *Ecofeminism*, London: Zed Books, 2020.

## Abstract

The Anthropocene and the Humanities  
– Future of the Earth and the Humanities Envisioned  
by the Ecofeminism of Carolyn Merchant's

Lee, Yun-Jong(Sogang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academic topography of the discourses on the anthropocene to delve into how the humanities can insightfully respond to the ecological crisis of the Earth through the lens of environmental humanities proposed in a 2020 book, *The Anthropocene and the Humanities: From Climate Changes to a New Age of Sustainability* by a scientific philosopher, Carolyn Merchant.

By publishing her latest book, *The Anthropocene and the Humanities*, Merchant, a pioneering scholar of ecofeminism, has recently started into inquiring into the discourses on the anthropocene, meaning a geological age led by anthropos/humans. In one of her most distinguished works of 1980, *The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Merchant has revealed that the modern Western perception of nature, often identified with women, have been figuratively killing nature as well as women. Arguing in *The Anthropocene and the Humanities* that the anthropocene has been enacting a “second death of nature,” which has been practically and technically killing nature, Merchant calls for the insight of the environmental humanities that help us to build a “sustainable livelihood” based on the “partnership” between human and nonhuman nature.

This paper contemplates on what humanities can do in the era of anthropocenic planetarian crisis with the environmental humanistic alternatives in ecofeminist perspective to overcome the anthropocenic crisis aggravated by the covid-19 occurred at the point when the climate change was viscerally felt by the humans in the twenty first century.

(Keywords: The Anthropocene and the Humanities, Carolyn Merchant, anthropocene, ecologism, death of nature, climate change,

ecofeminism, environmental humanities, sustainability, partnership,  
partnership ethic)

논문투고일 : 2021년 5월 10일  
심사완료일 : 2021년 6월 4일  
수정완료일 : 2021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1년 6월 15일